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현섭 편집

제509호

2024년 2월

가장 좋은 시절 .....	손현섭	2
신약성서 번역본(마 24:26-51) .....	전준덕	3
우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	연창호	19
아담의 자손과 믿음 .....	최정일	25
송구영신 .....	한정주	45
하나님께 나아가자 .....	한정주	47
아사왕의 두 마음 .....	조규철	53
천지창조 1 .....	최제현	59
2024 봄 전국집회 안내 .....	편집실	69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	메나리	70

## 성서신애사

## 가장 좋은 시절

이곳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지 벌써 2년. 손주 셋과 아들 내외를 포함한 일곱 식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다. 특히 가정집회 시간은 어른 넷이 순서를 정하여 성서공부를 발표하고 소감을 나누는데, 두 돌 된 막내도 아멘을 외치니, 은혜 충만한 시간이다.

나의 하루는 홀로 하는 예배로 시작한다. 기도하고 성서를 읽은 후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 음정이 이상하다고 웃으며 아내가 방에서 나온다. 그때부터 손주들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를 함께 한다. 이 녀석들이 할머니 밥이 맛있다고 하여 시작한 일이다.

큰 손녀는 규칙 소녀여서,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빠비며 우리 집으로 건너와 공부를 한다. 요즘은 둘째도 공부 욕심을 내서 한글을 익히는 중이다. 그걸 본 셋째도 덩달아 그림책을 들고 오니 아침부터 면학 분위기 가득한 흐뭇한 광경이 펼쳐진다. 우리 부부는 교사 출신이라 서로 분담하여 아이들을 지도한다.

시끌벅적 밥을 먹고 나면 8시. 손주 셋을 태우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간다. 그때부터 한가한 여유시간이다. 오전에 자전거를 타거나 숲길 걷기를 한 후, 일 좀 하고 나면 오후 3시. 아이들을 데려올 시간이다. 아침과 반대로 먼저 1호를 데려와 아내에게 인계하면 간식을 챙겨주고 공부도 함께 한다. 그사이 나는 2호와 3호를 데려온다. 서둘러 간식을 먹이고 또 태권도학원으로. 1호와 2호가 유일하게 다니는 학원이다. 이때 3호는 아내와 남는다. 한 시간 후 학원에서 다시 집으로 픽업. 그때부터는 퇴근한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가고 우리 일과는 끝이 난다.

저녁은 우리 둘 다 최애 활동 시간. 나는 탁구장으로 가고, 아내는 혼자 TV를 켜놓고 만화를 그리며 행복해한다. 주변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며 부러워한다. 참으로 그렇다. 그저 감사뿐이다. (손현섭)

# To KATA MATTHAIION AGION EYAGGALION

## <맛다이오스에 의해(기록한) 거룩한 복음>

(일명 :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룩한 복된 소식)

마 26:1-41

전 준 덕

26장 1절 : Καὶ ἐγένετο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πάντας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εἶπε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사역 : 이제 이에수스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끝날 때가 되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1. ἐτέλεσεν : τελ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7:28절 참조).

2절 : Οἴδατε ὅτι μετὰ δύο ἡμέρας τὸ πάσχα γίνεται, καὶ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παραδίδοται εἰς τὸ σταυρωθῆναι.

사역 : 여러분은 이를 후에 유월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하여(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넘겨질 것 이오.

주) 1. πάσχα(불변) :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양, 유월절 식사, 유월절 잔치)의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

2. παραδίδοται : παραδίδωμι(παρά+δίδωμι)의 현재, 중(수), 직설법, 단수, 3인칭(4:12절 참조).

3. σταυρωθῆναι : σταυρόω(단축동사)(십자가에 못 박다, 십자가형에 처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

3절 : Τότε συνήρχθησ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π

ρεοβύτεροι τοῦ λαοῦ εἰς τὴν αὐλὴν τοῦ ἀρχιερέως τοῦ λεγομένο  
υ Καιᾶφα,

사역 :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카이아파스라  
하는 제사장의 관저로 함께 모으게 될 것이오.

주) 1. συνήρχθησαν : συνάγω(σύν+ἄγω의 합성동사0의 제1과, 수동  
태, 직설법, 복수, 3인칭(2:4절 참조).

2. αὐλὴν : αὐλή(안뜰, 마당, 농장, 대궐, 궁전, 관저, 집)의 제1,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3. πρεοβύτεροι : πρεοβύτερος의 남성, 복수, 주격(15:2절 참조).

4. ἀρχιερέως : ἀρχιερεύς의 남성, 복수, 주격(16:21절 참조).

4절 : καὶ συνεβουλεύσαντο ἵνα τὸν Ἰησοῦν κρατήσωσιν δόλῳ (κ  
ρατήσωσιν) καὶ ἀποκτείνωσιν.

사역 : 그리고 저들은 이에수스님을 교활한 방법으로 잡아서 죽이기 위  
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것이오.

주) 1. συνεβουλεύσαντο : συμβουλεύω(σύν+βοολεύω의 합성동사)  
(함께 일으키다, 같이 일어나게 하다, 깨어나게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태, 직설법, 복수, 3인칭.

2. κρατήσωσιν : κρατ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가정법, 복수, 3  
인칭(9:25절 참조).

3. δόλῳ : δόλος(미끼, 올무, 속임, 교활, 간교, 약속 어김, 거짓됨,  
배신, 변절)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여격.

4. ἀποκτείνωσιν : ἀποκτείνω(ἀπό+κτεί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의 현재, 능동태, 가정법, 복수, 3인칭(10:28절 참조).

5절 : ἔλεγον δέ, Μὴ ἐν τῇ ἑορτῇ, ἵνα μὴ θόρυβος γένηται ἐν τῷ

λαῷ.

사역 : 그러나 저들은 말하고 또 말할 것이오. 곧 민란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피하자 하리이다.

주) 1. ἔλεγον : λέγω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과 복수, 3인칭(본절은 복수, 3인칭).(1:16절 참조)

2. ἔοπτη : ἔοπτή(명절, 축제일, 유월절, 잔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3. θόρυβος : (소란, 소동, 요란, 동요, 혼란, 법석, 대곡)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주격.

6절 : Τοῦ δὲ Ἰησοῦ γενομένου ἐν Βηθανίᾳ ἐν οἰκίᾳ Σίμωνος τοῦ λεπροῦ,

사역 : 그런데 이예수스님께서 베다니아에 사는 문동이(한센)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주) 1. γενομένου : γίνομαι의 제2과 중간태, 분사, 남성, 단수, 소유격(1:22절 참조).

7절 : προσῆλθεν αὐτῷ γυνὴ(ἔχουσα) ἀλάβαστρον μύρου ἔχουσα βαρυτίμου, καὶ κατέχεεν ἐπὶ τὴν κεφαλὴν(τῆς κεφαλῆς) αὐτοῦ ἀνακειμένου.

사역 : 한 여인이 향유가 들어 있는 값비싼 석고를 들고 이예수스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이예수스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주) 1. ἀλάβαστρον : (석고, 석고로 만든 물건)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2. μύρου : μύρον(향유, 고약)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수, 소유격.

3. βαρύτιμοι : βαρύτιμος(값비싼, 귀한, 보배로운, 고귀한)의 제1, 제2 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중성), 단수, 소유격(본절은 중성).

4. κατέχεεν : καταχέω(κατά+χέω의 합성동사) (위에서 붓다, 내리 붓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5. ἀνακειμένου : ἀνάκειμαι(ἀνά+κεῖμαι의 합성동사)의 현재, 중(수), 분사, 남성, 단수, 소유격(22:10절 참조).

8절 : ιδόντες δὲ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ἡγανάκτησαν, λέγοντες, Εἰς τὸ ἡπάπλεια αὕτη:

사역 : 그러자 이에수의 제자들이(그 장면을) 본 후에 분개하고서(이구 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왜 낭비합니까?”

주) 1. ἡγανάκτησαν : (20:24절 참조)  
2. ἀπώλεια(ἀπό+օλεθρος의 합성어) : (파괴, 멸망, 멸절, 전멸, 낭비, 소비, 소모)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주격.

9절 : ἡδύνατο(ἐδύνατο) γὰρ τοῦτο τὸ μύρον πραθῆναι πολλοῦ, καὶ διθῆναι πιωχοῖς.

사역 : ‘이 향유를 많은(값으로) 팔 수 있겠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걸’ 하고 빙정거렸습니다.

주) 1. ἡδύνατο : δύναμαι의 미완 중(수), 직설법, 단수, 3인칭(3:9절 참조).  
2. πραθῆναι : (18:25절 참조)  
3. πιωχοῖς : πιωχός의 남성, 복수, 여격(5:3절 참조).

10절 : Γνοὺς δὲ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αὐτοῖς, Τί κόπους παφέχετε τῷ

γυναικί; ἔργον γὰρ καλὸν εἰργάσατο(ήργάσατο) εἰς ἐμέ.

사역 : 그러자 이예수스님은 아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분은 무슨 이유로 그 여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소? 이 여인을 내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소.

주) 1. γνούς : (12:15절, 1:25절 참조)

2. κόπους : κόπος(수고, 애씀, 고난, 어려움, 근심, 걱정, 피곤, 노동, 일)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수, 대격.

3. παρέχετε : παρέχω(παρά+χω의 합성동사)(드리다, 바치다, 하사하다, 수여하다, 주다, 제공하다, 보이다, 보여주다, 일으키다, 일어나게 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

4. εἰργάσατο : (25:16절 참조)

11절 : πάντοτε γὰρ τοὺς πιστοὺς ἔχετε μεθ' ἔαυτῶν, ἐμὲ δὲ οὐ πάντοτε ἔχετε.

사역 : 자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여러분 자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소마는 나는 항상 함께 지낼 수 없소.

주) 1. πάντοτε(부) : (시간에 대해)(언제나, 항상)

12절 : βαλοῦσα γὰρ αὕτη τὸ μύρον τοῦτο ἐπὶ τοῦ σώματός μου, πρὸς τὸ ἐνταφιάσαι με ἐποίησεν.

사역 : 그러므로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었는데 내 장사를 위해 행한 것이오.

주) 1. βαλοῦσα : βάλλω의 제2과,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주격 (3:10절 참조).

2. ἐνταφιάσαι : ἐνταφιάζω(ἐν+ταφιάζω의 합성동사)(장례 준비하다, 매장 준비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

13절 :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που ἔὰν κηρυχθῇ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το ἐν ὅλῳ τῷ κόσμῳ, λαληθήσεται καὶ ὁ ἐποίησεν αὕτη, εἰς μνημόσυνον αὐτῆς.

사역 : 진실로 내가 여러분께 말하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하는 일도 그녀의 기념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오.

주) 1. κηρυχθῇ : κηρύσσω의 제1과 수동태, 가정법, 단수, 3인칭(3:1절 참조).

2. μνημόσυνον : (기념물, 영예로운 기념, 기념예물)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3. λαληθήσεται : λαλέω(단축동사)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9:18절 참조).

14절 : Τότε πορευθεὶς εἴς τῶν δώδεκα, ὁ λεγόμενος Ἰούδας Ἰοκαριώτης, πρὸς τοὺς ἀρχιερεῖς,

사역 : 그 때에 열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미스카리오테스 이우다스라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15절 : εἶπε, Τί θέλετε μοι δοῦναι, καὶ γὰρ ὑμῖν παραδώσω αὐτόν; Οἱ δὲ ἔστησαν αὐτῷ τριάκοντα ἀργύρια.

사역 :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그놈을 넘겨줄 것이니 여러분은 내게 얼마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에게 은 삼십냥을 정했습니다.

주) 1. παραδώσω : παραδίδωμι(παρά+δίδωμι의 합성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5:25).

2. ἔστησαν : ἔστημι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4:5절 참조).

3. ἀργύρια : ἀργύριον의 복수, 대격(25:18절 참조).

16절 : καὶ ἀπὸ τότε ἐζήτει εὐκαιρίαν ἵνα αὐτὸν παραδῷ.

사역 :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스승을 넘기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주) 1. εὐκαιρίαν : εὐκαιρία(εύ+καιρός의 합성어)(좋은 기회, 좋은 계기, 좋을 때)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2. ἐζήτει : ζητέω(단축동사)의 미완,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2:13절 참조).

17절 : Τῇ δὲ πρώτῃ τῶν ἀξύμων προσῆλθον οἱ μαθηταὶ τῷ Ἰησῷ, λέγοντες αὐτῷ, Ποῦ Θέλεις ἐτοιμάσωμέν σοι φαγεῖν τὸ πάσχα;

사역 :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이에수스님 앞으로 나와 그분께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어디서 준비할 것을 원하시옵니까?

- 주) 1. πρώτῃ : πρῶτος의 여성, 단수, 여격(5:24절 참조).  
2. ἀξύμων : ἄξυμος(누룩 없는)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복수, 소유격. (τὰ ἄξυμα : 무교절)  
3. ἐτοιμάσωμέν : ἐτοιμάζω의 제1과, 능동태, 가정법, 복수, 1인칭(3:3절 참조).

18절 : Ο δὲ εἶπεν, Υπάγετε εἰς τὴν πόλιν πρὸς τὸν δεῖνα, καὶ εἴπατε αὐτῷ, Ο διδάσκαλος λέγει, Ο καιρός μου ἐγγύς ἐστι· πρὸς σὲ ποιῶ τὸ πάσχα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μου.

사역 : 그러자 이에수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그에게 말하시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이르렀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당신 집에서 지내고 싶소”라고 하시오.

- 주) 1. δεῖνα : (어떤 사람, 아무개, 그런 사람) 이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 두루 사용되는 명사.
2. ποιῶ : ποιέω(단축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3:3절 참조).

19절 : καὶ ἐποίησαν οἱ μαθηταὶ ὡς συνέταξε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ἤτοι μασάν τὸ πάσχα.

사역 : 그래서 제자들은 이에수스님이 자기들에게 명하시는 대로(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월절을(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 주) 1. συνέταξεν : συντάσσω(σύν+τάσσω의 합성동사) (명하다, 지시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0절 : Ὁψίας δὲ γενομένης ἀνέκειτο μετὰ τῶν δώδεκα.

사역 : 그래서 저녁때에 이에수스님께서는 열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 주) 1. Ὁψίας γενομένης : (저녁때에)의 한 숙어.
2. ἀνέκειτο : ἀνάκειμαι(ἀνά+κεῖμαι의 합성동사)의 미완, 중(수), 직설법, 단수, 3인칭(22:10절 참조).

21절 : καὶ ἐσθιόντων αὐτῶν εἶπεν, Άμὴν λέγω ὑμῖν, ὅτι εἷς ὑμῶν παραδώσει με.

사역 : 이제 저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에수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를(배반하여) 넘겨줄 것이오.

- 주) 1. ἐσθιόντων : ἐσθίω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소유격(9:11절 참조).

22절 : καὶ λυπούμενοι σφόδρα ἥρξαντο λέγειν αὐτῷ, (εἶς) ἔκαστος αὐτῶν, Μήτι ἐγώ εἰμι, Κύριε;

사역 : 그러자 저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 저들의 각자가 이 예수스님께 질문하기를 주님이시여 저는 아니지요?

주) 1. λυπούμενοι : λυπέω(단축동사)의 현재, 중(수), 분사, 남성, 복수, 주격(19:22절 참조).

2. σφόδρα : (17:6절 참조)

3. ἥρξαντο : ἅρχω의 제1과, 중간태, 직설법, 복수, 3인칭(4:17절 참조).

23절 : Ὁ δὲ ἀποκριθεὶς εἶπεν, Ὁ ἐμβάψας μετ' ἐμοῦ(τὴν χεῖρα) ἐν τῷ τρυβλίῳ τὴν χεῖρα, οὗτός με παραδώσει.

사역 : 그러자 이예수스님이 대답하사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 안에 손을 넣는 사람이 그가 나를(배반하여) 넘겨줄 것이오.

주) 1. ἐμβάψας : ἐμβάπτω(ἐν+βάπτω의 합성동사) (담그다, 담기, 넣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2. τρυβλίῳ : τρυβλίον(대접, 접시, 그릇)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 명사의 단수, 여격.

24절 : οἱ μὲν οἱος τοῦ ἀνθρώπου ὑπάγει,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 περὶ αὐτοῦ, οὐαὶ δὲ τῷ ἀνθρώπῳ ἐκείνῳ δι’ οὗ ὁ οἱος τοῦ ἀνθρώπου παραδίδοται· καλὸν ἦν αὐτῷ εἰ οὐκ ἐγεννήθη ὁ ἀνθρώπος ἐκεῖνος.

사역 :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가오마는 사람이 아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넘김을 당하는데 그 사람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았을 것이오.

- 주) 1. καθώς(부) : (~과 같이), 마치 ~처럼, ~만큼, ~대로, ~한 이상)  
2. καθως γέγραπται :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의 숙어.  
3. ἐγεννήθη : (1:2절과 1:16절 참조)

25절 : Ἀποκριθεὶς δὲ Ἰούδας ὁ παφαδιδοὺς αὐτὸν εἶπε, Μήτι ἐγώ εἰμι, ῥαβδί: λέγει αὐτῷ, Σὺ εἶπας.

사역 : 이예수스님을(배반하여) 넘겨줄 아우다스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예수스님은 아우다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자 네가 말하였네”

26절 : Ἐξοθιόντων δὲ αὐτῶν, λαβὼν ὁ Ἰησοῦς τὸν ἄρτον, καὶ εὐλογήσας, ἔκλασε καὶ ἔδιδου (δοὺς)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καὶ εἶπε, Λάβετε, φάγετε· τοῦτο ἔστι τὸ σῶμά μου.

사역 : 자!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이예수스님은 떡을 드신 후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아먹으시오. 이 떡은 내 몸이요.

주) 1. εὐλογήσας : εὐλογέω(εὖ+λογέ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5:44절 참조).

2. ἔκλασε : κλάω(단축동사)(떼다, 쪼개다, 깨뜨리다, 떡을 떼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27절 : καὶ λαβὼν ιὸ ποτῆριον, καὶ εὐχαριστήσας, ἔδωκεν αὐτοῖς, λέγων, Πίετε, ἐξ αὐτοῦ πάντες·

사역 : 또 잔을 들어 감사하신 후 저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잔을 마시오.

주) 1. εύχαριστήσας : (15:36절 참조)

28절 : τοῦτο γάρ ἐστι τὸ αἷμά μου, ἰὸ τῆς καινῆς διαθήκης, τὸ περὶ πολλῶν ἐκκυνόμενον(ἐκκυννόμενον) εἰς ἄφεσιν ἀμαρτιῶν.

사역 :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에 대한 훌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가 되겠소.

주) 1. καινῆς : καινός의 여성, 단수, 소유격(9:17절 참조).

2. διαθήκης : διαθήκη(διά+θήκη의 합성어)(유언, 법령, 칙령, 언약, 규약, 계약, 선언)의 제1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소유격.

3. ἀμαρτιῶν : ἀμαρτία(범죄, 빗나감, 잘못, 악행)의 제1 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소유격.

4. ἄφεσιν : ἄφεσις(용서, 해방, 탕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대격.

5. εἰς ἄφεσιν ἀμαρτιῶν : (죄 사함을 위하여)의 숙어

29절 : λέγω δὲ ὑμῖν, ὅτι οὐ μὴ πίω ἀπ' ἄρτι ἐκ τούτου τοῦ γενήματος τῆς ἀμπέλου, ἔως τῆς ἡμέρας ἐκείνης ὅταν αὐτὸ πίνω μεθ' ὑμῶν καινὸν ἐν τῇ βασιλείᾳ τοῦ πατρός μου.

사역 : 자, 내가 여러분께 말하오. 지금부터 포도나무의 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여러분과 함께 내가 마시는 그날까지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오.

주) 1. πίω : πίνω의 제2과, 능동태, 가정법, 단수, 1인칭(6:25절 참조).

2. ἀπ' ἄρτι : (지금부터, 이제부터)의 숙어.

3. γενήματος : γένημα(소산, 산물, 열매, 결과)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소유격.

4. ἀμπέλου : ἄμπελος(포도, 포도주, 포도나무)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수, 소유격.
5. ἐκ τούτου τοῦ γενήματος τῆς ἀμπέλου : (포도나무의 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의 숙어.
6. ἔως τῆς ἡμέρας ἐκείνης ὅταν αὐτὸ πίνω : (내가 마실 그날까지)의 숙어.

- 30절 : Καὶ ὑμνήσαντες ἐξῆλθον εἰς τὸ ὄρος τῶν ἐλαιῶν  
 사역 : 그리고 저들은 찬미한 후 감람산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주) 1. ὑμνήσαντες : ὑμνέω(단축동사) (찬양하다, 찬송하다, 노래부르다, 노래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2. εἰς τὸ ὄρος τῶν ἐλαιῶν : (감람산으로 향해)의 숙어.

- 31절 : τότε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Πάντες ὑμεῖς σκανδαλισθήσεθε ἐν ἐμοὶ ἐν τῇ νυκτὶ ταύτῃ· γέγραπται γάρ, Πατάξω τὸν ποιμένα, καὶ διασκορπισθήσεται(δια스κορπισθήσονται) τὰ πρόβατα τῆς ποιμνῆς.

사역 : 그때에 이에수스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런데 양의 무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였소.

- 주) 1. σκανδαλισθήσεσθε : σκανδαλίζω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5:29절 참조).
2. πατάξω : πατάσσω(치다, 때리다, 상처를 내다, 때려 눌히다, 죽이다)라는 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
  3. ποιμένα : ποιμήν의 단수, 대격(9:36절 참조).
  4. διασκορπισθήσεται : δια스κορπίζω(διά+스코르피우의 합성동사)

(흩어지게 하다, 뿌리다, 낭비하다, 탕진하다, 헤어지게 하다)라는 동사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2절 : μετὰ δὲ τὸ ἐγερθῆναι με προάξω ὑμᾶς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사역 :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라이아로 갈 것이오.

주) 1. προάξω : πρό+ἄγω의 합성동사)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14:22절 참조).

33절 : Αποκριθεὶς δὲ ὁ Πέτρος εἶπεν αὐτῷ, Εἰ καὶ πάντες σκανδαλισθήσονται ἐν σοί, ἐγὼ οὐδέποτε σκανδαλισθήσομαι.

사역 : 그러자 페트로스가 대답하여 이에수스님께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제자들이 스승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저버리지 않겠나이다(않을 것입니다).

주) 1. σκανδαλισθήσονται : σκανδαλίζω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5:29절 참조).

34절 : Ἔφη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Ἀμὴν λέγω σοι, ὅτι ἐν ταύτῃ τῇ νυκτὶ, πρὶν ἀλέκτορα φωνῆσαι, τρὶς ἀπαρνήσῃ με.

사역 : 이에수스님께서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말하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오.

주) 1. ἀπαρνήσῃ : ἀπαρνέομαι(ἀπό+ἀρνέομαι의 합성동사)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단수, 2인칭(16:24절 참조).

35절 : λέγει αὐτῷ ὁ Πέτρος, Καν δέη με σὺν σοὶ ἀποθανεῖν, οὐ μή σε ἀπαρνήσομαι. ὄμοιώς καὶ πάντες οἱ μαθηταὶ εἶπον. (εἶπαν)

사역 : 페트로스가 이에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라

도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주) 1. κὰν(καὶ+ἔάν의 합성어) : (그리고 만일, 비록~일지라도, ~만이라도)

2. ἀπαρνήσομαι : ἀπαρνέομαι(ἀπό+ἀρνέομαι의 합성동사)의 미래, 중간태, 직설법, 단수, 1인칭(16:24절 참조).

36절 : Τότε ἔρχεται μετ' αὐτῶν ὁ Ἰησοῦς εἰς χωρίον λεγόμενον Γεθσημανῆ, (Γεθсим안,) καὶ λέγει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Καθίσατε αὐτὸ ὅ, ἔως οὗ ἀπελθὼν(ἐκεῖ) προσεύξωμαι ἐκεῖ.

사역 : 그때에 이예수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드세마네라는 곳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으시오.”

주) 1. χωρίον(χώρα의 지소사) : (곳, 장소, 땅, 토지, 밭, 농장, 들)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수, 주격과대격(본절은 전치사 εἰς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대격)

2. καθίσατε : καθίζω의 제1과, 능동태, 명령법, 복수, 2인칭(5:1절 참조).

3. προσεύξωμαι : προσεύχομαι(πρός+εὔ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현재, 중(수), 가정법, 단수, 1인칭(5:44절 참조).

37절 : καὶ παραλαβὼν τὸν Πέτρον καὶ τοὺς δύο νιόὺς Ζεβεδαίον, ἦρξατο λυπεῖσθαι καὶ ἀδημονεῖν.

사역 : 그리고 페트로스와 제베다이오스의 두 아들들을 인솔하여 가실 때(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 1. λυπεῖσθαι : λυπέω(단축동사)의 현재, 중(수), 부정사(14:9절 참조).

2. ἀδημονεῖν : ἀδημονέω(단축동사) (기가죽다, 근심하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염려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38절 : τότε λέγει αὐτοῖς, Περίλυπός ἐστιν ἡ ψυχή μου ἔως θανάτου· μείνατε ὅδε καὶ γρηγορεῖτε μετ' ἐμοῦ.

사역 : 그래서 이에수스님은 떠라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심정이 매우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오. 여러분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정신 차리고 있으시오.

주) 1. περίλυπος(περί+λύπη의 합성어) : (매우 슬픔, 크게 서러운, 심히 고통스러운)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 단수, 주격.

39절 : καὶ προελθὼν μικρὸν ἔπεσεν ἐπὶ πρόσωπον αὐτοῦ προσευχόμενος, καὶ λέγων, Πάτερ μου, εἰ δυνατόν ἐστι παφελθέτω(παρελθάτω) ἀπ' ἐμοῦ τὸ ποτήριον τοῦτο· πλὴν οὐκ ὡς ἐγώ θέλω, ἀλλ' ὡς σύ.

사역 :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시여 할 수 있사오면 내께서 이 잘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마시옵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 1. ἔπεσεν : πίπτω의 제2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4:9절 참조).

2. ἔπι πρόσωπον : (엎드리다)의 숙어.

3. παφελθέτω : παφέρχομαι(παφά+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의 제2과, 능동태, 명령법, 단수, 3인칭(5:18절 참조).

40절 : καὶ ἔρχεται πρὸς τοὺς μαθητὰς καὶ εὑρίσκει αὐτοὺς καθεύδοντας, καὶ λέγει τῷ Πέτρῳ, Οὗτας οὐκ ισχύσατε μίαν ὥραν γρ

ηγορῆσαι μετ' ἐμοῦ;

사역 :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저들을 보시고 페트로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한 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소?

주) 1. καθεύδοντας : καθεύδω(κατά+εῦδω의 합성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대격(9:24절 참조).

2. ισχύσατε : ισχύω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복수, 2인칭(5:13절 참조).

3. γρηγορῆσαι : γρηγορέω(단축동사)의 제1과, 능동태, 부정사(25:13절 참조).

41절 : γρηγορεῖτε καὶ προσεύχεσθε, ἵνα μὴ εἰσέλθητε εἰς πειρασμόν. τὸ μὲν πνεῦμα πρόθυμον, ἡ δὲ σὰρξ ἀσθενής.

사역 :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오. 마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소 만은 육신이 연약하도다!

주) 1. πειρασμόν : πειρασμός(시험, 유혹, 꾀임, 입증, 증명)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수, 대격.

2. πρόθυμον : πρόθυμος(πρό+θυμός의 합성어)(언제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열성 있는, 자진해서 하는 (명) 용의, 성의, 호의, 열성)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중성, 단수, 주격과 대격(본절은 주격).

### 【1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6줄	γὰρ είπωσιν	γὰρ εἴπωσιν
3쪽11줄	ταμείον	ταμεῖον
7쪽2줄	문에, 문 앞에)	(문에, 문 앞에)
9쪽2줄	ἀἱρω(유음동사)의	ἀἱρω(유음동사)의

##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사야 65:1-15)

연 창 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하였다.(사65:1)

○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사63:15~190 하는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나타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사59:1)이나 침묵(사64:12)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언제나 임재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였으나  
그들은 거역하며 자기들 멋대로  
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벽돌 제단에서 분향하여  
항상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사65:2~3).

○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 악한 짓을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정원에서 제사하고, 벽돌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으로 이방신에게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행을 그대로 둔 채 복을 받기 원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겨, 응답해 줄리 없건만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신을 부르는 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을 만나려고  
무덤이나 동굴을 찾아가며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삶아 그 국물을 마시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는 네가 만져서는 안 될 거룩한 몸이다.’하고 말하니  
이런 자들이 밤낮 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사65:4~5).

○ 죽은 자들의 영을 만나려고 무덤을 찾는 행위의 대표는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삼상 28장).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우상에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은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이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여겨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라고 말한 역겨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알아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들의 심판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모르는 척하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그들의 죄는 물론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산 위의 이방 신전에서 분향하며  
나를 모욕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지난 일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 줄 것이다(사65:6~7).

○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내립니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현대 교회 역시 우상을 믿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실 우상숭배의 역사이고 그 가증스러움이 극에 달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한 이름을 모욕하는 현대 교회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쁜 포도송이에도 즙을 짤 만한 좋은 포도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송이째 던져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 백성을 송두리째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내 백성을 살아남게 하겠다.  
나를 섬기는 택한 내 백성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기며 사론 평야와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의 소 떼와 양 떼를 먹일 것이다(사 65:8~10).

○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희망은 남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그루터기를 일부 남겨 놓아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승하게 합니다. 우리의 역사 또한 의인들에 의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샤론 평야는 갈멜산 근처인 이즈르엘 평원에 있고,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근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쪽으로는 샤론에서, 동쪽으로는 아골 골짜기에 이르도록 소와 양이 사는 목초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빌론을 나와 고토(故土)에 돌아와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축복을 내려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잊고  
행운과 운명의 신인 갓과 므니 신을 섬기는 자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사65:11~12).

○ ‘갓’은 운수의 신을 말하고 ‘珉니’는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고금이래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것은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세상사라 늘 점집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행운과 운명의 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일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겐 점을 칠 일도 없고 앞날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

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어버리면 운수나 운명을 따져 보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필요한 인생임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께 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나를 섬기는 종들은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할 것이나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즐거워할 것이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내 종들은 기뻐서 노래할 것이나  
그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통곡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저주거리로 사용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그들은 죽이고  
내 종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다.  
복을 구하는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맹세하는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사65:13~16).

○ 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종의 반대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겐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종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은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고 스승이고 구주입니다. 과거의 일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나누는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로 봅니다. 다만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럼 우상은 무엇이고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인지요? 세상의 우상은 돈과 기적과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거부했습니다.<sup>1)</sup>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

1) 마태4:1~10

## 아담의 자손과 믿음

(창세기 5:21-24, 히브리서 11:5-6)

최 정 일

### <창세기 5:21-24>

#### I. 성서 본문

에녹은 예순다섯 살에 므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뒤에, 삼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표준 새번역)

#### II. 관주 성경

##### 1. NRSV 영어 성경

(1) 24절의 ‘에녹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물리적 죽음이 아닌 어떤 것을 암시하는 비전형적인 표현이다.

(2) 이와 관련된 기사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왕하 2:11-12]에 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 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 2. NASB 영어성경

(1)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과 ‘그저 단순히 살아가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가리킨다.

(2) ‘에녹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히 11:5) 하나님과 계신 곳(the presence of God)으로 데려간 것이다. [히 11:5]에는 이렇게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옳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또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 3. NAB 가톨릭영어성경

○‘에녹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이는 에녹이 사망을 겪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처소로(to God’s abode)’ 산 채로(alive) 데려가진 것을 의미한다.

## III. 성서주해

### (1) 루터의 해석

1) 에녹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고 더 이상 에녹은 보이지 않았다. 즉 오직 에녹만이 ‘죽지 않았다’고 쓰여있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2)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특별히 들었다는 것은 에녹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명예이다. 이것은 에녹이 깊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죽음을 겪지 않는’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정말로 모든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 우리[루터시대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그리스도를 가졌다.

3)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후 에녹은 보이지 않았다는 기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사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과 역사[자신의 행위]로써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매일 강화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 뒤에는 다른 삶이 있다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하여 여기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

4)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보라! 나는 사람들이 가진 것

과 다른 것을 가졌다. 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갈 때 죽지 않도록 한다!” 결론은 이렇다. 나는 이 기사로써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떠나면 불멸의 삶이 있다.

- 이 기사는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위로를 준다!

5)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즉 「에녹은 어디로 갔는가?」 또는 「에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①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을 겪지 않고 데려가신 사례를 오직 두 경우만 볼 수 있다. 에녹과 엘리야[왕하 2:10-11]의 경우이다.

② 그러면 에녹이 간 곳은 어디인가? 그가 낙원[Paradies]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나(루터)는 낙원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마도 천사도 또한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은 에녹도 엘리야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③ 하나님은 이 세상 외에도 누군가를 데리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데려가셔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서도 안 된다!

④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마지막 종말의 날에 우리와 함께 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볼 것이다. 마지막 때 에녹도 우리와 함께 설 것이고 그때 그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실은 그를 하나님으로 데려간 그 순간과 같은 때이다. 왜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한 순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현실처럼 선행사건과 후행 사건이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 (2)칼빈의 해석

1) 22절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는 표현은 에녹을 그

당대의 사람 중에서 특히 칭찬한 것이다. 물론 셋, 게난, 마할랄렐, 아렛도 경건함으로 칭찬받고 있지만, 오직 에녹만을 성령께서 보통의 질서에서 면제시키셨다. 이로써 에녹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추측할 수 있다. 에녹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 것이다!

## 2) 24절의 해석

① 특별한 무엇인가가 여기 있다. 모세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겪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선포한다. 에녹은 특수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기적적 방법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졌다.

② 즉 에녹은 그의 생애 중반에서 갑자기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주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이다라는 뜻이고 이런 일은 엘리야 때도 있었다.

③ 에녹의 승천(귀천:translation) 안에서 불멸성의 사례가 보이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로하려는 것이다. 즉 죽음 뒤에는 더 나은 삶이 어디엔가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겪을 신자의 두려움을 완화 시키신다.

④ 아담은 이 믿음과 위로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즉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때가 아담 사후 150년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아담이 죽은 지 57년이 지난 때라고도 한다. 그러나 아담은 뱀에 대한 승리의 희망을 가지도록 명백한 신택하나님의 권위있는 말씀을 이미 받았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신자도 희망을 죽을 이 땅의 삶[mortal life]의 경계 안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⑤ 에녹이 하늘로 간 사건은 축복받은 부활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다. 생명이 빼앗기는 것은 그 자체로는 원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에녹은 이 땅보다 더 나은 거처로 하나님에 의하여 옮겨졌다. 에녹은 하늘나라 [heavenly country]로 받아들여졌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똑똑히 가

르치고 있다. (히 11:5-6)

⑥ 나아가 「왜 에녹이 하늘로 데려가셨는지」하는 문제와 「에녹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나(칼빈)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늘로 데려가지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다. 왜냐면 그 사람이 사망이라는 두렵고 난폭한 영과 육의 분리를 면제받고 조용히 그리고 기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⑦ 그러나 이때 에녹이 하늘로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천국의 영광 (celestial glory)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땅의 삶의 비참함에서 면제되었다는 뜻일 뿐이다. 그리스도는 부활할 사람들의 첫열매이시다. 사망이 항상 육체로부터 영혼을 분리하는 것은 사망의 핵심이 그들이 부패하는 본성을 벗어버리는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종말의 날]을 살아서 맞게 되는 사람들의 죽음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이다.[살전 4:17]

### (3) 델리취·카일의 해석

1)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은 오직 에녹과 노아에게만 적용된다(창 6:9). 이것은 인격적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와 가장 가까운 친교를 나타낸다.

2) 에녹에게서 경건함은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에녹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하늘의 낙원[the heavenly paradise]」안에 옮겨졌고 그래서 사망을 겪지 않았다(히 11:5). 즉 지상의 일시적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다. 에녹은 하나님에 의해 사망의 법과 먼지로 돌아가는 것에서 면제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는 신자들의 경우와 같다. 이들은 사망과 부패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한 순간에 변화할 것이다.

3) 그런데 「에녹이 그를 데려갈 때 이미 영화되었기 때문에, 부활시에

의인을 기다리는 영화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견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신 것은 영화의 때가 아니고 부활의 때이기 때문이다(고전 15:20-23).

4) 부활은 사망을 전제로 하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을 면제받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는 없고 변화됨 또는 옷입혀짐을 통하여 영광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다(고후 5:4).

5) 왜냐면 죄의 삶으로서 사망을 지정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을 모든 사람의 영화를 사망과 부활에 사슬로 매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영화 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6) 에녹과 엘리야는 그리스도 신자가 위로받기 위하여 그리고 사망 뒤의 생명의 희망을 일깨우기 위하여 질병, 죽음 그리고 썩어짐을 겪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생명 안으로 승천[귀천]하였다.

7) 에녹의 승천은 아담과 노아 때의 대홍수 중간 시점에 있는데 아담의 창조 이후 987년째의 해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리고 야렛은 아직 살아있었다. 에녹의 아들인 므두셀라와 에녹의 손자인 라멕도 또한 살아있었고 에녹의 승천 때 라멕의 나이는 113세였다. 에녹의 승천 시에 노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고 아담은 이미 죽었다.

8) 에녹의 승천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데, 그 승천은 모든 세대의 회개의 본보기였다. 가톨릭한글성경에서 외경인 집회서 44:16에는 에녹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린 뒤 하늘로 옮겨졌다. 그는 만대에 회개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였고, 49:14에서는 이때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에녹은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외경 에녹서를 인용한 유다서 14:15에서는 에녹을 불신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사람 중 대표적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9) 다른 믿음의 조상과 비교할 때 에녹은 그가 통상적인 나이의 절반에 도달하기도 전에 짊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물론 「장수[長壽]」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은총의 기간으로 주신 축복이기는 하지만 죄를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재앙을 생각해 볼 때 긴 수명은 무거운 짐이고 고통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이들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단축 시키려고 보통의 경우보다 더 일찍 데려가신다. 이것은 라멕이 창 5:28-29에서 증언하고 있다.

10) NAB 가톨릭영어성경의 관주에 의하면, 창 3:17 이하 인간의 타락에 기하여 땅에 내려진 저주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포도주를 제조하기 위한 포도의 재배에서 즉 농업에서 성공을 이룬 노아의 사적과 관계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11) 라멕은 예언자적 육감으로 현존하는 비참과 부패가 끝날 때[저주로부터의 구속]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이는 라멕이 바라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노아 대홍수의 방식으로 일어났었다.

#### IV. 총괄·비평·정리

(1) [창 5:21-24]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 1) 이것은 루터와 칼빈과 델리취가 일치한다.
- 2) 그 중 대표적인 루터의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녹은 깊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을 전파했다. 거룩한 믿음의 조상들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그리스도를 가졌다. 이 기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의 삶 뒤에는 다른 삶이 있다’는, 조상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여기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 결론은 이렇다.」

‘나는 이 기사로써 죽은 자들의 부활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떠나면 불멸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기사는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위로를 준다.」

(2) 「에녹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문제:

1) 이것도 루터와 칼빈과 델리취가 일치한다.

2) 그 중 대표적인 루터의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녹은 낙원[Paradies]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럼에도 나(루터)는 낙원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천사가 거하는 공간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실은 에녹도 앤리야도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 외의 곳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데려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옮겨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서도 안 된다.

믿음의 조상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설 것이다. 마지막 때에 에녹도 우리와 함께 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은 그날이 하나님에 의하여 옮겨간 그 순간과 같은 때이다. 왜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선행 후행 사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 <히브리서 11:5-6>

#### I. 성서 본문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또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표준 새번역)

## II. 성서주제

### (1) 칼빈의 주제

#### 1) [히 11:5] 부분

①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옮겨졌으므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공공연히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모세는 「에녹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것은 에녹의 믿음에 기인한다.

② 호기심 많은 자들이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하여 옮겨진 뒤 어떻게 되었을까를 묻는다. 에녹과 엘리야는 따로 떼어 두었다가 종말의 때에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 공상한다.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듣다.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translation]은 특별한 죽음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그리스도 신자들과 함께 축복받은 불멸에로 새로워지기 위하여 사멸하고 말 부패한 몸을 벗게 되었다.

#### 2) [히 11:6] 부분

① 히브리> 저자는 6절에서 「왜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는지」의 이유를 직접 설명한다. 즉 유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결코 올 수 없다!

② 우선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인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로써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의 목적으로 간주되도록 우리의 전 생애가 형성된다.

③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구원과 영생의 희망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우리도 구원의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할 것이다.

④ 그런데 많은 자가 수치스럽게 이 구절을 왜곡한다. 왜냐면 이들은 이 구절에서 행위의 공로와 그 공로에 따른 상급을 받을 자격과 그러한 권리에 대한 자만심」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상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의 공로와 관계된다고 추론한다.

⑤ 이런 오류는 특히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생각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나(칼빈)는 찾는다를 부지런히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즉 엑제 투신:ekzētouσιν(찾아내다,조사하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청구하다: seek out, search for, investigate, beg, crave)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단지[그 저=그냥=단순히] 찾는 것이다. 이는 [행 15:17]과 [롬 3:11]과 [신명기 4:29]과 [시 14:1-3]과 [렘 29:13]에도 잘 나타나 있다.

⑥ 그리고 <성서>는 말한다.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길은 자신에게 지치고 강타당해서 자신은 영원한 사망을 당해 마땅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로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하는 것이라고!

⑦ 상(賞)은 행위의 공로나 가치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행위의 공로나 가치나 자격을 자랑하는 궤변가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오류이다.

⑧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혀된 일이 아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확신시켜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누리게 한다.

⑨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한지를 배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당초 그 본성상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마땅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를 해결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우리를 앞질러서 사랑해주셔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 그 어떤 우상도 아닌,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 하나님[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됨을 믿어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해방자[구속자]가 되심을 알아야 한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⑩ 우리는 여기서 오직 「하나님(그리스도)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왜냐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그리스도)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이것만으로는 믿음의 절반일 뿐이고 많이 부족하며 거기에 확신이 덧붙여져야만 믿음은 완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된다.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주신다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말한다.

## (2) 벵겔(Bengel:Gnomon)의 주해

### 1) [히] 11:5] 부분

①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②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사멸할 이 땅의 삶에서 불멸의[영생의] 하늘나라의 삶으로 건너갔다.

③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에녹은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인정(증언)을 받았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을 가리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 2) [히] 11:6] 부분

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그 결과에 의하여 증명된다.

②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는 하나님께 오다라는 뜻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와 히브리어 원문성서를 탁월하게 결합시켰다.

#### \* 히브리서 저자에 대하여

벵겔은 바울 사도를 저자로 본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크레멘스(기원 211년경 사망)는 바울 사도가 쓴 것을 누가가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고, 오리겐[Origen:기원 254년 사망]은 의사인 누가 또는 당대 로마의 에클레시아 수장 클레멘스 로마누스로 보았다. 라틴의 교부 테르툴리안(기원 215년경 사망)은 바나바 사도라 했고, 루터는 아폴로(행 18:24 이하; 고전 3:45), 칼빈은 클레멘스 로마누스라 하였다. 동방교회는 바울 사도, 기원 419년 이후의 서방 로마 가톨릭교회도 19세기 전반부까지 바울 사도로 보았는데(예컨대 아우구스티누스), 지금은 그 확신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그가 누구든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2세대 그리스 도신자일 것이다. 그의 권위는 당대(기원 80년경)에 바울 사도만큼 신학상 확고했음에 의문이 없다.

#### ③ 「하나님께 오려는(나아가려는) 사람은」

(가)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사려는 사람이란 뜻이다

(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④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 이 결론은 불가결하고 뒤집을 수 없는 결론이다.

⑤ 그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기사에서 도출 되듯이 에녹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모세도 애굽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히 11:27].

⑥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다」: 에녹에게는 이미 확정된(결정된) 사실이었다. 에녹의 믿음이 그것을 증언한다. 외경인 지혜서 13:1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자들은 본디 아주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匠人)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즉 이들은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다고 있다. 이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뜻과 같다.

⑦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히 11:3·7·8·27·29]에 잘 나타나 있다.

⑧ 이같이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사물의 선취(先取)이고, 불신은 보이지 않는 것(증명될 수 없는 것)은 전적으로 없는 것 즉 망상(妄想)으로 보는 것이다.

⑨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주시는 분: 이것은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3) 오토 미헬(Otto Michel: 신판 마이어[Meyer] 주해전집)의 주해  
미헬의 서문 : 이 주해도 인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하나님의 시도일 뿐이다.

### 1) [히 11:5] 부분

① 묵시론적 예언서들[Apokalyptik]에서 에녹이 「에덴동산」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히브리서는 묵시론적 예언서들을 이어받고 있다[창 5:24].

②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것들과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유아레 스테인: 70인역성서]라고 믿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6절에 있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2) [히] 11:6]부분

- ① 하나님을 찾다[에크제테오]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는 뜻이다.
- ② 6절 전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나타내고 있고 히 11:1 믿음의 정의(定義)의 재수용이다.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상주시는 분이심은 그리스도 신자의 희망의 일부이다.

③ 히브리서 저자 시대에도 불신자와 무신론자의 논쟁이 치열했다. 이 믿음의 적들은 과거 소피스트에게 있었던 불신의 생각[믿음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한 공상일 뿐이고 권력획득을 위한 도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에서 유일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결합하고 있는 이 기사가 쉽게 이해된다. 이 무신론자들은 지고자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율법을 멸시한 것이다.

## (4) 바흐(F. Laubach:부퍼탈 성서주해전집)의 주해

### 1) [히] 11:5] 부분

① 에녹은 믿음 안에서 살았고 이 믿음은 에녹이 하나님에 의하여 죽음을 겪지 않고 데려 가지게 하는 전제 요건이었다. 창 5:21-24에는 두 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왜냐면 에녹은 하나님에 의하여 데려가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인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 유다서 14-15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아담의 칠태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이 하나님을 거슬러 지껄인 무례한 말을 남김없이 다스려 그들을 단죄하실 것입니다(공동번역).”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 믿음을

가진 자(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증언(선포)하는 자였다. 이것이 결정적인 전제 요건이었다. 그리스도 신자 또한 같다.

## 2) [히 11:6] 부분

① 하나님의 약속을 끈기있게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것이 6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다.

② 여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규칙이 나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약성서 믿음의 증인들의 예에서 제시되듯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제요건이다. 구약성서의 증인들처럼 신약의 그리스도 신자도 믿음에 구속되어 있다. 여기서는 히 11:1의 믿음의 개념의 설명이 다시 채택되고 있다.

③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에 속하고 이성(理性)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신약성서는 항상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표현한다[골 1:15-16].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보이지 않는 분이심은 상호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

④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가운데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

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은 믿음에 대한 무언의 전제요건이고,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관념적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⑦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도 깊은 희망을 가진다. 하나님

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는 분이시다.

⑧ 그리스도 신자들의 최종적 구속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심판을 가져온다.

⑨ [히] 10:35]의 ‘여러분의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는 명백히 공로사상[Verdienst]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신자와 주님의 관계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대가)관계」[Lohnverhaeltnis]가 아니다. 신자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들[주님의 권속이고 노예]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자는 주님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주님의 「주권(主權)적 인자하심과 자유」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주시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만든다. 결국 신자의 참순종의 동기는 보수(대가)사상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진 주 예수의 대속의 희생의 죽음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은 데서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삶의 혼신(봉헌)’이다.

⑩ 불신자의 자연적 사고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신자의 삶에서는 이루어진다[고후 4:18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감각적 경험의 확실함을 넘어서는 확실함이다. 창 21:12-19, 왕하 6:16-17에 나온다.

⑪ 이같이 믿음이란「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림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던 세계의 실재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5)슈트로벨(A. Strobel:NTD 독일 신약성서 주해 전집)의 해석

1) [히]11:5] 부분

① 에녹은 그의 특별한 경건함에 근거하여 직접 하늘(정확히는 낙원)로 데려가진다. 이 땅위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에녹

은 지상에서 들어올려졌다(집회서 49:14).

② 에녹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 2) [히 11:6] 부분

① 이 요약은 히브리서 저자의 근본확신과 일치한다. 믿음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께 갔다면 그 것은 명백히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만이다(히 4:16).

(6)바톤, 베어만 그리고 테일러(Barton, Veerman, Taylor: 미국 Life Application 성서주해전집)의 주해

### 1)개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2) [히 11:5] 부분

① <에녹 1서>[1 Enoch]는 위서(偽書)라고 신·구약성서의 중간시기에 쓰여진 것인데 총 106장이고 에녹이 받은 환시(이상:異象)에 대하여 쓰고 있으며 유다서 14절에서도 인용할 만큼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다.

② 에녹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 위의 삶에서 「하늘의 삶(heavenly life)」으로 데려가졌다.

③ 히브리어 구약성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나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번역하고 있다.

## 3) [히 11:6]부분

①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유다인 그리스도신자들(Hebrew Christians)에 대한 경고이다.

②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믿는 것만으로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마귀들도 이를 믿는다(약 2:19).

③ 하나님은 단지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아가 사람과의 개인적·인격적·역동적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신다. 유다인 그리스도신자들(Jewish Christians)은 특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주신다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④ 인간의 이성(理性)만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바랄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믿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아우구스티구스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고 했다.

⑤상주신다는 것은 히 3장과 4장에서 밀하는 안식과 상속(기업을 주심)을 가리키고. 히 4:14-10:18에서 논의되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가리킨다.

### III. 총괄·비평·정리

#### (1) [히] 11:5-6]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1) 이것은 모든 주해자가 일치한다. 즉 믿음에 의한(믿음으로부터 오는) 의이다.

2) 대표적인 칼빈과 벵겔과 라우바흐의 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칼빈의 해석:

(ⓐ)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린 것은 에녹의 믿음에 기인한다. 하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왜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는지’하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있다. 즉 ‘유일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결코 올 수 없다’라고.

(ⓑ) 많은 자들이 수치스럽게 이 구절을 왜곡한다. 왜냐면 이들은 이 구절로부터 ‘행위의 공로’와 ‘그 공로에 기한 상급을 받을 자격과 그러한 권

리에 대한 자만심'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는 특히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져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즉 나(칼빈)는 '찾는다'를 '부지런히'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즉 '액제투신'[=찾아내다]이란 동사의 의미는 '단지(단순히) 찾는다'이다.

(데) 성서는 말한다. 하나님을 찾는 올바른 길은 '자신에게 지치고 강타당 해서 영원한 사망을 당해 마땅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로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하는 것'이라고. 상(賞)은 행위의 공로나 가치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행위의 공로나 가치나 자격을 자랑하는 궤변가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오류이다.

(라)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왜 '사람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한지'를 배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애당초 그 본성상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마땅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를 해결 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에 의하여 우리를 앞질러서 사랑해주셔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아닌,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됨을 믿어야만 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

## ② 벙겔의 주해:

(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히 11:27].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믿어야 한다'- 이 결론은 불가결하고 뒤집을 수 없는 결론이다.

(나)'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에녹에게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것(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d)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히 11:3·7·8·27·29]에 잘 나타나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불신은 ‘보이지 않는 것[증명될 수 없는 것]은 전적으로 없는 것 즉 망상으로 보는 것’이다.

③ 라우바흐의 주해:

(가)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 가시기 전에 믿음을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선포하는 자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데려가신 결정적 전제요건이었다.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도 또한 같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끈기 있게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증인들의 예에서 보듯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제요건이다. 구약성서의 증인들처럼 또한 신약 아래 그리스도 신자도 믿음에 구속되어 있다. 여기서는 [히 11:1]의 믿음의 개념의 설명이 다시 채택되고 있다.

(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일에 속하고 우리의 이성(理性)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가운데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요 1:18; 히 11:27].

(라)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대요 14:1-6; 히 7:25].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 송구영신

한 정 주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지금, 새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통460장)과 620장(여기애 모인 우리)가 떠오른다.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기 모인 오류동 모임 식구들 함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난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되어 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절망은 악마가 주는 것이다. 2024년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 1. 이진구

### ◎ 신사년(辛巳=2001년)을 맞으면서

새해를 맞는 0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느낀 소감이다. 성서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시90:10)라고 했으니 지금도 80이 넘으면 과분한 은혜로 장수하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귀중한 일생이다. 이것을 허비하면 아니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는다.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번 것을 칭찬하고 기뻐하셨으며,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번 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 1달란트 맡은 자도 1달란트만 벌었으면 칭찬하셨을

것인데, 무성의하게도 노력을 포기하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꾸중을 듣게 된 것이다. 우리는 평계 맬 것이 없다. 하나님은 맡기신 분량대로 요구하시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구한다.

(이진구 신앙문집, 도서출판 보람, 267쪽)

### ◎ 새해를 맞으면서(2005년)

이제는 늙어서 건망증이 심하고 눈이 흐리고 귀가 멀어서 우세거리가 되고 남에게 폐를 많이 끼친다.

그렇다고 아주 폐물이 된 것은 아니다. 세상에 대한 매력이 약해져서인지 천국의 모습이 확실해지고 가치 판단이 새로워진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보다 못나고 악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 보다 버림받는 것들이 귀중하게 보이게 된다.

시편 92편 13-15절은 새해에 나의 기도이다.(2005.1)

(이진구 신앙문집, 도서출판 보람, 319쪽)

### ※ 시편 92편 13-15절, 표준새번역

13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14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15 그래서 나는 선포할 것이다. “주님은 올곧으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 2. 송두용. 1975년이여, 안녕!

사람들은 다사다난한 1년이라고 말한다. 사실이다. 그것은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누구도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땅 위의 인생(현실)이

아니냐?

가는 해 슬퍼말고 오는 해를 고요히 맞자. 다만 구주 예수 안에서!

기쁘다. 내 속에 주님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두용 신양문집 제1권, 414-415쪽)

##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자

(시편 122편)

한정주

제 122편 (개역한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2 예루살렘아 우리 밭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3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4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5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협통하리로다

7 네 성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협통이 있을찌어다

8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찌어다

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은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한다. 그런데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착공하여 완성하였으니까 다윗 시절에는 성전이 없었다. 아마도 후대의 성경 기록자가 다윗시절에 있었던 장막을 솔로몬 이후의 후대가 잘 알고 있는 성전으로 바꿔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역 한글과 표준 새 번역에서는 제목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였는데 요희세 선생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올라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들어가야 한다.

시편 122편은 1절, 9절에는 여호와의 집이 언급되고, 2절에서 8절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언급되었다. 그 성안의 평안과 형통을 기원하고 있고, 형제와 친구 곧 이웃의 평안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야훼의 집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9절)

### 1. 톰슨성경

이 시의 저자는 즐거웠던 예루살렘 순례의 기억을 회상한다(1,2절). 그는 예루살렘을 민족의 정신적 중심지로 찬양하며(3-5절), 그곳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6-9절).

122:1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이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가리킨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오랜 에돔의 집에서 가져와 다윗성(예루살렘)에 자신이 임시로 만든 장막 안에 갖다 놓았다(삼하 6:12-17).

122:7 네 성안에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는 이유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 2. 그랜드 종합주석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기도 한 거룩한 도성(都城) 예루살렘을 찬양하며, 그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는 본시는 다윗의 저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여진다. 순례자들이 최종 목적지인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예루살렘 성의 문에 이르러 부르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이다.

**122:3 조밀한 성읍.** ‘조밀한’(하바르)은 ‘함께 묶다’, ‘결합하다’의 뜻으로 이는 예루살렘성이 묶인 나무처럼 견고하고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외면적인 의미보다는 내면 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므로 거룩한 통치와 질서가 잘 이루어짐은 물론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잘 연합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Rawlinson).

**122:4 여호와의 지파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 전체를 강조한 표현이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전례(에두트)’라는 말은 ‘법도’, ‘명령’, ‘증거’라는 의미로, 1년에 3번, 즉 유월절과 초막절, 칠칠절에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정한 규례를 말한다(신 16:16).

**122: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쏠라)’는 ‘번성하다’, ‘안전하다’의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과 이 성전이 있는 도성의 평강을 간구하는 자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예루살렘’과 ‘평안’(쏠롬)은 히브리어에서 같

은 어월(샬람)을 갖는 바 여기서 우리는 본 시구의 언어적 유희(play of words)를 보게 된다.

(그랜드 종합주석 9, 872-873쪽)

### 3. 유희세

1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다윗의 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노라”라고 사람들이 내게 말 했을 때, 나는 기뻤다.

2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문 안에 우리 발은 [들어가] 서 있었다.

3 그[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건설되어 오로지 그에 의하여 견고한 짜임새 있는 예루살렘이여.

4 그곳에 여러 지파는 올라가나니 야하웨의 지파들이로다. 야하웨의 이름에 감사를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증거로다.

5 실로 거기에 의의 보좌가 있나니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샬롬]을 기원하라:

“[예루살렘이여] 너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이 있을지어다.

7 너의 성안에 평안이 있고 너의 성새 안에 형통이 있을 지어다’라고.

8 내 형제를 위하여, 내 벗을 위하여 나는 너의 안에 평안이 있으라고 기도하노라.

9 이하웨의 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너의 행복을 희구하노라.

◎ 성새(城塞): 성과 요새

1절. 들어가노라[nelek]. 개역이나 표준 새 번역처럼 전통적인 번역 ‘올라가자’라고 번역하려면 [neleka]라야 한다(Dahood 주해).

**2절. 서 있었다.** 개역은 ‘섰도다’, 표준 새 번역은 ‘들어서 있다’라고 되어 있다.

**5절. 의의 보좌.** 예루살렘이 다윗 왕조의 수도임을 말한다. 그것은 한 정치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8절. 내 벗을 위하여.** 깔뱅 주해서에서: “오, 예루살렘아! 너의 평안을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나의 일가의 행복 때문이 아니다. 너의 번영이 하나님과 모든 자녀들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내 벗, 내 형제라고 할 때 이 시인은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깔뱅 시편주해V. 78쪽). 이 시인의 예루살렘 성전순례는 하나님의 종교적 자기만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곤경에 처한 형제, 벗의 구원을 위함이다.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37-439쪽)

#### 4. 존 칼빈

성경에는 의를 권장하는 심히 많고도 훌륭한 이유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레19:2, 벤전1:15-16). 의의 기초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이 그 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상의 사악과 부패에 잠겨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평생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해야 한다는 충고가 있다(시116:19, 시122:2-9). 주께서 이 도성을 자신의 것으로 성별하셨으므로 주민의 불결로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는 흄이 없고 의를 구하

는 자라고 하였다(시15:1-2, 시24:3-4). 이는 그가 거하시는 성소가 마굿간같이 오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 중, 존 칼빈 지음, 생명의말씀사, 194쪽)

## 5. 마무리

성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고전3:16-17, 표준새번역).라고 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벧전1:15-16) 라고 하였다.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서 천국을 누릴 때 평안(8절)과 행복(9절)이 있다.

## 아사왕의 두 마음

조 규 철

성경 - 역대하14:11 (표준새번역)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께서 돋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려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윗 왕은 우리아 장군과 그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왕상15:5) 다윗 왕조는 다윗(40년) - 솔로몬(40년) - 르호보암(17년) - 아비야(3년) - 아사(41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사는 다윗 이후의 왕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일했다고 성경 기록자가 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북쪽의 사정을 보면, 르호보암왕 때에 남북이 분단되어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22년) - 나답(2년) 2대로 끝납니다. 나답 시대에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과 여로보암 일족을 진멸하고 새로운 왕이 되어 24년을 통치합니다.

오늘은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 41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1~2년) - 나답(2년) - 바아사(24년) - 엘라(2년) - 시므리(7일)- 오므리(12년), 이렇게 6명의 왕이 지나 갔습니다. 아사는 주로 바아사와 대치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 <1차 종교개혁과 성벽보수>

솔로몬시대에 외국 신들의 제단이 유다 땅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아사왕 때까지 이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이것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선왕들이 만들어 놓은 석상, 목상, 태양상 등 모든 우상들도 부수어 버립니다. 또 전국에서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앴는데, 일부 산당은 남겨두었습니다. 모든 산당을 없앨 사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산당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며, 그 분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라고 지시합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는 7년에 한 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신31:9~13). 성경에는 아사왕이 율법을 읽어주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읽어 주었으니까 실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사의 통치 초기 10년 정도는 외부의 침입이 없어서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아사는 유다의 성읍들을 요새화 합니다.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잘 방비를 하였습니다.

## <구스(이디오피아)와의 전쟁>

구스(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백만 대군에 병거 삼백 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군인 삼십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군인 이십팔만이 있었습니다. 총 580,000명의 정예병이 있었으나 구스에 비교하면 수적으로도 장비로도 열세였습니다.

아사는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돋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

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려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전투에서 에디오피아 군대는 크게 패하여 전멸하고, 유다 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적에게는 백만 대군을 먹이기 위한 보급품이 많았을 것입니다.

## <2차 종교개혁>

그 때에 예언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아사왕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를 떠나지 않는 한, 주께서도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오. 당신들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이 그를 버리면, 그도 당신들을 버리실 것이오. (중략)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그는 그들을 만나주셨소. (중략) 당신들은 기운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오.”

아사는 이 모든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는 또 주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리품 가운데서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주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

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사의 할머니 마야가는 대왕대비의 자리에 있었는데 마야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대왕대비의 자리를 폐하고, 목상은 토막 내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릅니다.

여기까지의 아사왕의 행실은 조상 다윗왕이 걸었던 행실과 비슷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아사는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한 금, 은 그리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 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 <바아사와의 대치>

아사왕 36년에 북쪽 이스라엘왕 바아사는 유다와의 접경지역에 있는 라마라는 성읍에 내려와서 성읍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성읍을 요새화하여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사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아람(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 벤하닷왕의 아버지와 맺었던 동맹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벤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와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야훼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청하였습니다.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이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의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맷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아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치게 합니다. 바아사는 이 소식을 듣고 라마성의 보수를 중단합니다.

아사왕은 외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온 유다인을 불러내어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라마성의 북쪽지역에 위치한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고 자기의 관할로 둡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히려 영토 확장이라는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님과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믿으셨습니다. 구스(에디오피아)군대와 병거와 군마가 많았지만, 왕의 믿음을 보시고 야훼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이렇듯이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는 몹시 화가 나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으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자 즉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과 비교됩니다. 선견자 하나님을 얼마나 동안 가두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화가 풀린 후에 풀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 <다리의 질병>

아사왕은 재위 39년에 다리를 크게 앓았습니다.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그는 야훼를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의사들이란

주술사를 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2년 후에 숨을 거둡니다.

### <소감>

아사왕은 전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만한 행실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년의 두 사건을 잘못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아사왕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였고 성과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17:20)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눅17:6)

## 천지창조 I

최 제 현

What a wonderful world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Louis Armstrong 노래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the day And the dark say goo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go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hear babies crying	나는 초록빛 나무를 봅니다. 붉은 장미도 봅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피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나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빛나는 축복된 날과 어둠이 안녕을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무지개의 색깔들 하늘에서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아름답습니다  친구들이 약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묻는데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	---

<p>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Oh yeah</p>	<p>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나는 혼자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오 이에!</p>
<p>1967년 ABS Record 사의 Bob Thiele 와 George David Weiss 가 만든 곡으로 같은 회사소속인 루이 암스트롱(1901~1971)이 노래하였습니다. ABS Record 사장은 이런 느린 음악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중단하려 했다가 버리는 셈 치고 홍보도 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응이 신통찮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싱글이 발매되고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친근한 음악이 되었습니다.</p>	

그 당시 흑인들의 삶이 그렇듯이 루이 암스트롱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 13세 때 공공장소에서의 방황과 사소한 장난질로 인해 소년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

암스트롱은 교도소 안에서 트럼펫을 배워 음악의 길로 들어섰고 “재즈의 황제”로 불리게 됩니다.

이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노래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멋진 세상”을 즐기는 법을 완벽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벽한 세상! 하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은 이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자연에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고,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꺼내면 “그렇게 믿으면 맘이 편할 테니 부럽다”고 빙정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비약과 우연

을 당연시하는 현대과학의 뻔뻔스러운 설명에는 저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멋진 세상(What a wonderful world)을 창조하신 과정에 대해 성서의 관점이 아닌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짚어보고자 합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공개된 인터넷 등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으나, 시간대별로 정리해 놓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 평소에는 알아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창조주라면 이 세상을 무(無)에서 어떻게 창조했을까?”

각자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하며 꼭 따라오세요.(깊은 것은 저도 모르니 인터넷에서 각자가 검색해 보시기 추천합니다. 부끄..)

138억 년 전, 물리학자들은 우주빅뱅(태초의 큰 폭발)으로 시간과 공간과 빛(광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간? 처음부터 얼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런 건 가치없이 넘어가 줍니다.

어쨌든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태양 같은 별(항성)도 생겨, 오랜 핵융합 끝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별은 내부온도가 1억도에 이르는 적색거성이 되는데 이 1억도의 높은 온도에서 탄소, 규소 등이 생성되었습니다.

### [우주 최초의 물질, 수소 생성]

50억 년 전, 질량이 아주 큰 별이나 쌍성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중금속이 생성되어 전 우주로 뿌려지고 잔해(가스, 에너지)들이 군데군데 모입니다. 이 먼지들이 정전기와 인력(引力)의 작용으로 뭉쳐 작은 운석이 되고, 그 운석이 자꾸 뭉쳐 지구 같은 행성이 되고 행성계(태양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압축열이 축적되어 행성들은 마그마 상태였습니다.

### [별과 태양계의 탄생]

46억 년 전, 태양보다 10억 배나 밝은 초신성은 폭발 불과 몇 초 만에 철과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들을 생성하고 우주공간으로 퍼져 나가 다른 별들을 생성할 재료가 되었습니다. 끓는 마그마 상태의 지구는 당시 하루 6시간의 빠른 자전과 중력의 작용으로 원소분리가 진행됩니다. 즉, 철 같이 무거운 것은 지구 가운데로 내려가 핵이 되고, 가벼운 규소 같은 것은 지구표면으로 몰립니다. 더 가벼운 기체는 대기층이 되었습니다.

### [지구의 기본 틀과 물질이 형성]

45억 년 전 지구, 운석들과의 계속되는 충돌로 덩치가 커지고 열이 축적되어 섭씨 1,200도에서 액화된 암석 위에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질소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성크기의 행성 “테이아”가 초속 15km(마하44)의 속도로 지구에 부딪혀 지구는 더 커지고 인력도 더 커졌으나, 그 충격으로 우주로 날아간 파편들이 인력의 영향으로 토성의 띠처럼 지구주변에 퍼졌다가, 다시 모여 달이 되었습니다. 만일 속도가 더 빨랐다면 지구가 흩어졌을 것이고, 느렸다면 달은 없을 것입니다.

### [달의 탄생]

39억 년 전, 지구는 수많은 유성의 벌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들은 물 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유성에는 아주 적은 물 분자만 있었지만 2천만 년 동안 이 유성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지구에 많은 물이 축적되어 바다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은 모두 39억년전 우주에서 운석에 담겨 날아온 바로 “그” 물입니다.

당시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 지구와 달의 거리는 2.2만km로 지금의 40만km보다 아주 가까워서 엄청난 파도가 쳤습니다. 다행히 달의 큰 인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은 점점 더 늦춰지고, 달은 지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유성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고, 미네랄과 탄소와 아미노산 그리고 원시 단백질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다에는 미네랄, 단백질 등의 화합물이 섞이고 녹아 들었습니다.

원리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화합물이 모여 최초로 DNA를 가진 LUCA(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이 태어납니다. 이 단세포 생물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DNA를 물려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당시 지구에는 지금의 수십 배 많은 번개가 쳐서 아미노산이 단세포 생물 또는 박테리아로 변하도록 도왔을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과학은 진화의 방향과 잇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일개 영양소인 아미노산의 입장에서 생물이 되려는 의지나 필요에 대한 설명은 못합니다. 누군가의 창조과정이라는 답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진화의 방향성”이라고 제법 설득력이 있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이 이론은 진화가 누군가의 뜻으로 진행되는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론과학자들은 진화에 방향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진화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방향성이 없이 단순한 우연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은 생물체이외의 환경에서는 자기증식이 불가능한 물질입니다. 생물체 없이 자기증식이 불가능하며, 돌연변이도, 유성생식도 안 되는 단순한 영양소인 화합물이 번개 몇 방 맞고 DNA를 갖는 생물체로 변한 것을 “우연”이라 한다면 공상만화 스토리입니다.

#### [지구에 물과 미네랄과 DNA준비]

35억년전, 물이 얕은 곳에 수많은 섬들이 생겨나고 바다속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s)”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의 군집이 번성하며 광합성 즉, 이산화탄소와 햇빛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마술같이 부산물로 산소를 생산했답니다.

### [대기에 산소를 준비]

15억 년 전에 지구의 판을 움직여 바다를 가르고 섬을 연결하여 장장 4억 년에 걸쳐 11억년전에는 초대륙인 판기아(Pangaea:모든 땅)을 형성하였답니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s)”는 20억년동안 계속해서 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생물이 번성하기에는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 [최초의 대륙이 형성]

7억5천만년전, 초대륙이 둘로 갈라지고 화산활동이 빈번해져 화산재와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여. 빙하기가 옵니다. 이 시기에는 두께 3km에 달하는 빙하가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화산활동은 계속되었는데 온천지가 얼음으로 뒤덮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곳이 없어져 대기에서 온실 효과를 보이는 한편, 햇빛속의 강한 자외선이 얼음 속의 물 분자와 반응하여 과산화수소( $H_2O_2$ )를 만들었고 얼음이 녹으면서 과산화수소가 막대한 산소( $O_2$ )로 변하게 됩니다.

### [지구에 충분한 산소 준비]

5억4천만년전, 바다에 다양한 생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시기(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접어듭니다. 바다 밑에는 수만종의 식물과 동물이 번성하는데 육지는 어떨까요? 기후는 30도 정도로 따뜻했고 산소수치도 지금과 비슷했지만, 태양이 치명적인 자외선을 내뿜었기 때문에 지상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대기와 만나는 지상 50km위 지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소가 자외선을 만나 오존( $O_3$ )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억2천만년을 지내면서 오존층은 두꺼워졌고 그 오존은 태양의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강한 자외선이 산소를 만들고 산소가 오존이 되어, 용도를 다한 자외선을 막는 지구의 “자기발전식” 지구방위프로세스(공정)입니다. 정말 기발합니다.

###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방어막 준비]

3억7천5백만 년 전, 페데르페스(Pederpes)라는 물고기가 물밖으로 나와, 3억5천만 년 전에는 서식지를 육지로 옮깁니다. 시간이 더 지나 이 물고기에서 공룡, 새, 포유류, 인간까지 모든 척추동물로 진화합니다. 당시에는 양치류(이끼) 식물밖에 없었으나, 배아식물이 퍼져 지구상에 산소를 내뿜고 동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절지동물과 파충류와 30미터가 넘는 이끼 등이 죽으면서 습기가 많은 퇴적층에 오랜 기간 쌓였으나, 적절한 기후와 지질학적 조건으로 썩지 않고 암석이 덮여 시간이 지나면서 석탄으로 변형됩니다. 이 시기가 석탄기입니다.

### [인간이 사용할 자원 준비]

2억5천만 년 전, 시베리아지역의 용암층의 대규모 분출과 이로 인한 화산재로 지구의 대기는 이산화황으로 변하고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대기온도가 올라가 물이 증발하였고, 뜨거워진 물이 산소를 증발시키고 빙하기에 바다 밑에 얼어 있던 메탄가스가 녹으면서 생물의 95%가 멸종하여 지구는 다시 죽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피름기 멸종입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5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멸종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멸종 후 5천만 년이 지난 2억 년 전에 산성비는 중화되고 이산화탄소는 감소하여 기후는 더욱 안정되고 식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공룡 등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고 충만해졌습니다.

### [인간시대를 위해 간헐적으로 분출되던 메탄제거 및 기후안정화]

1억9천만 년 전, 지구의 판이 또 움직여 대서양과 인도양을 만들면서 유독가스와 화산재가 하늘을 덮었으나, 당시 해류는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여 물고기가 풍부하였고 이후 천만년, 죽은 물고기와 플랑크톤이 쌓여 퇴적층을 형성하였는데 그 쌓인 압력으로 온도가 상승하며 석유가 됩니다.

### [인간이 사용할 자원들이 계속 준비]

1억8천만년전, 아메리카판은 유럽과 아시아대륙으로부터 일년에 2.5cm 정도로 천천히 벌어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구의 판이 움직였고 대륙의 재배치가 이루어져 새로운 대륙들이 나타나며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지구가 변할 때마다 지구의 생명체는 변화하며 진화해 갔고 지상에는 공룡들이 번성했습니다. 공룡과 식물의 유해는 석탄.석유.석회암이 되었으며 공룡의 뜻은 토지를 비옥하게 했습니다.

### [인간시대를 위한 환경조성]

6천5백만년전, 멕시코만 유카탄반도 부근에 직경 10km의 소행성이 초 속 12km(마하35)의 속도로 지구상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수백만개의 핵폭탄과 맞먹습니다. 충격으로 날아다니는 돌의 크기도 도시의 한 구역 만했답니다. 지진이 천지를 뒤흔들고, 엄청난 폭풍이 불고, 수km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구반대편에 11,000m로 솟은 산들이 낮아지고, 용암이 터져올라 지표면은 섭씨 275도로 타오르고, 햇빛이 연기에 가려 없어지니 식물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진 동물도 사라집니다.

1억5천만 년동안 지구를 차지했던 공룡은 철저히 멸종되었으나, 포유류는 주로 땅속에 살았고 조금만 먹어도 되기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소행성이 더 빠른 속도로 부딪혔다면, 40억년동안 만들어진 지구가 2~30억년은 되돌아갔을 것이고, 속도가 더 낮았다면 공룡이 아직 살아남아 인간을 한끼 식사꺼리로 사냥하고 있어 인류의 문명은 아직 굴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비껴 맞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지구는 다시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2억년 이상 존재한 공룡시대를 진화의 과정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해 석유와 석탄을 만들어 땅을 비옥하게 하는 과정이었고, 목적을

다한 후 인간을 위해 완전히 멸종된 것입니다.

#### [지형 평탄화 및 공룡 제거]

4천7백만 년 전,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한 달이 지구와 멀어져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기온평균은 24도로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됩니다.

대륙의 판이 또 움직입니다. 인도가 북쪽 아시아판으로 향해가며 부딪혀 두 판이 모두 뒤틀립니다. 광대한 산맥이 솟아오르며 히말라야산맥이 되고 에베레스트산도 생깁니다. 산봉우리 눈이 녹으며 인더스강, 갠지스강, 황하, 양자강으로 흘러 미래에는 지구인간의 절반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 [인간시대 생활환경조성]

2천만년전, 모든 대륙과 바다가 지금과 같아집니다. 아직 인간은 없습니다. 320만년전, 이디오피아에서 인류조상의 화석 Lucy(Homo erectus)가 발견되었는데, 송곳니가 크고, 엉거주춤 걸으며 뇌용량이 400cc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숭이와는 전혀 다른 계보에서 진화해왔습니다.

#### [인류의 조상 출현]

150만 년 전, 아프리카 동부해안에서 발견된 인간은 완전히 두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7만년전, 지형이 다시 바뀌고 기후도 변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사이가 13km로 좁아지고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아졌습니다. 이제 현 인류(호모사피엔스, Homo sapiens)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이 얕은 바다를 건너 각 대륙으로 흘러쳤습니다.

4만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했지만, 유럽은 얼어 있었습니다. 빙하기입니다.

[적응을 위해 이 기간, 인간의 지능이 높아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게 되고, 생물다양성이 증가]

2만 년 전, 북반부의 대부분은 2.5km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이고 바다는 알아졌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메리카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만 년 전, 빙하는 북극과 남극으로 물러났습니다. 7천 년 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 유역에 인류 최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2천년전, 138억 년 이상, 한시도 쉼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뜻이 드러납니다.)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빅뱅 5분전”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전에 무엇이 있었고, 왜, 어떻게 빅뱅을 일으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과 수없이 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자연이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거나, 강약 조절이 달랐거나, 순서가 뒤바뀌었다면”하는 가정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이 우주는 아무도 인식해 주지 않는 “스스로 그려함(自然)”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138억년간의 상상하기 힘든 우연과 필연과 엄청난 파국으로 현재의 “What a beautiful world”를 만드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빅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시행착오나 연습과정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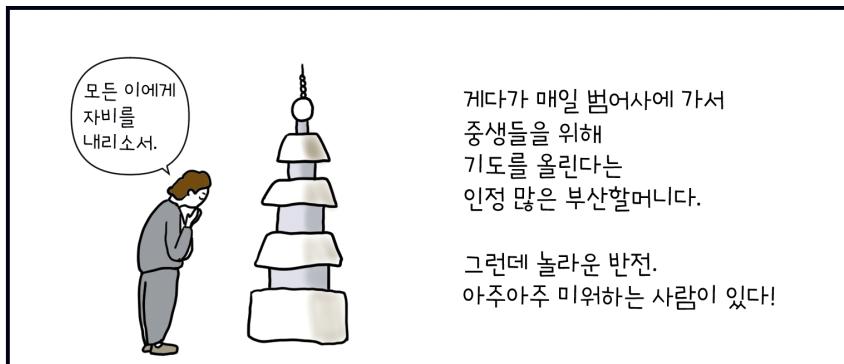
이 창조의 과정을 짚어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외치고 싶은 심정은 저만 그럴까요? 엘로힘 니체크!

# 2024 봄 한국무교회 전국집회 안내

#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미움의 끝>





미움은 다행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

(잠언 10:12)

## 【 오류문고 안내 】

오류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을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⑧)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 010-2060-5534
- ☆ [sonhs0105@hanmail.net](mailto:sonhs0105@hanmail.net)
-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우편번호 46050

## 월간 성서신애 제508호 2024년 2월

인	쇄	2024년	2월	1일
발	행	인	손	현
편	집	인	손	현
인	쇄	인	김	진
발	행	소	성	진
우	46050	부산	서	열
인	쇄	소	신	애
			우	사
			디	피